

원저

舍巖鍼法の 定型과 變型에 關한 考察

이봉효* · 이상남** · 김두진* · 김정원* · 임성철* · 정태영*** · 김재수* ·
이윤경* · 고경모* · 이경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기공학교실

***제한동의학술원

Abstract

A Study on the Fixed- and Transformed-pattern of *Saam* Acupuncture Treatment

Lee Bong-hyo*, Lee Sang-nam**, Kim Du-jin*, Kim Jeong-won*, Lim Seong-chul*,
Jung Tae-young***, Kim Jae-su*, Lee Yoon-kyoung*, Ko Kyung-mo* and Lee Kyung-min*

*Dept. of Acupuncture, Moxibustion, and Acupoint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Dept. of Gi-Go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Je-Han Oriental Medical Academy

Objectives : The authors performed this study to further understand Saam acupuncture treatment in an aspect of the use of two patterns i.e. fixed- and transformed-pattern.

Methods : The authors did documentary survey based on Do Hae Kyo Kam Sa Am Do In Chim Beop. 1. We investigated the frequency of the use of fixed- and transformed-pattern as well as the examples of use. 2. We surveyed related literatures and classified transformed-pattern. We did study on the principles of prescriptions of fixed- and transformed-pattern and researched the utilization.

Results and Conclusions :

1. Fixed-pattern occupys 35.3% and transformed-pattern takes much more part. 2. Fixed-pattern is based on Nangyoung · 69nan, and has the prescription of two enhancement and two inhibition by adaptation of Sangsaengsanggeuk(相生相剋) into self meridian and other meridian, and suggests the

· 접수 : 2008. 7. 16. · 수정 : 2008. 7. 20. · 채택 : 2008. 7. 21.

· 교신저자 : 이경민,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대구한방병원 침구과
Tel. 053-770-2112, E-mail: leehanamp@dhu.ac.kr

importance of the order of needling. 3. There are main points and assistant points in tonifying and suppressing of Fixed-pattern, accordingly, it has a system like Gunshinjwasa(君臣佐使). 4. Transformed-pattern is classified into following 3 types: first, the use of Nangyoung · 75nan; second, the substitution of Junghuyul(井穴) with Hyunghyul(榮穴) or Haphyul(合穴) according to Nangyoung · 73nan; third, the substitution of the same Osuhyul(五輸穴) in other meridians.

Key words : Saam acupuncture treatment, fixed pattern, transformed pattern

I. 緒 論

舍巖鍼法은 正格과 勝格을 이용하여 精氣를 도와주고 邪氣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침법이다. 精氣와 邪氣의 虛實關係를 定意한 것은 《黃帝內經》¹⁾에서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邪氣勝者, 精氣衰也”라고 언급한 이후, “實則瀉之, 虛則補之”로써 그 治法의 대강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難經·六十九難》²⁾에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라고 발전시켰고, 明代의 高武는 《鍼灸取英》³⁾에서 相生關係에 따른 自經五俞穴의 五行屬性에 의거하여 取穴하는 自經補瀉法을 서술하였으며, 張世賢은 《校正圖註難經》⁴⁾에서 相生關係에 따른 五俞穴의 取穴法을 他經絡까지 확대하였다.

朝鮮時代 中期 舍巖道人에 의해서 창안된 것⁵⁾으로 알려진 舍巖鍼法은 五行의 相生相剋關係에 입각하여 臟腑의 虛實에 따른 補瀉法을 운용하는데⁶⁾ 즉 相生關係와 相剋關係를 습하고 自經·他經의 補瀉法을 결부시켜서 正格과 勝格을 활용하는 우리 民族의 독창적인 鍼法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舍巖의 著作으로 알려진 筆寫本에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바, 治療篇은 舍巖 자신의 저작이나, 舍巖의 經驗方이라고 알려진 經驗篇은 芝山의 經驗方이라는 견해가 있고⁵⁾, 또한 芝山の 處方에는 정해진 형태의 正格과 勝格 이외에 독특한 형태의 處方, 즉 變型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⁷⁾. 그동안 舍巖鍼法의 定型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處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變型에 대해서는 아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⁶⁾, 몇몇 연구^{6,7)}에서 처방의 분류와 해석을 시도하였지만 아직 처방 구성의 원리와 응용에 대한 탐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正格, 勝格의 定型 處方 및 構成의 變化가 나타난 變型 處方에 대해 考察한 결과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2001년 小康出版社에서 출판된 《圖解校監舍巖道人鍼法》을 바탕으로 하여 문헌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기초 서적으로 《圖解校監舍巖道人鍼法》⁸⁾을 選定한 것은 이 책이 《朴采堂鍼鑑》, 《鍼灸篇》, 《五行鍼法書(舍巖鍼經)》, 《鍼灸要覽》, 《經濟要訣-舍巖目錄》, 《舍巖鍼法資料集》, 《舍巖五行鍼法秘訣》, 《祭病要訣》 등의 여덟 가지 筆寫本을 종합하여 校訂한 《校監舍巖道人鍼法》⁹⁾의 原文을 活用하였으므로 舍巖鍼法에 관한 서적 중 가장 原本에 가깝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① 正格과 勝格의 定型 處方 및 變型 處方の 活用 頻度와 使用例를 조사하였다.
- ② 定型과 變型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하고, 變型을 類型에 따라 分類하였다.
- ③ 定型과 變型의 處方 構成 原理 및 그 臨床的 應用에 대해 탐구하였다.

III. 結 果

1. 舍巖鍼法의 定型

1) 定型의 構成 및 原理

(1) 定型의 構成 原理

定型의 原理는 《難經·六十九難》²⁾에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라고 한 원칙에 “虛者瀉其官, 實者

補其讐”의 원칙을 결합시켜¹⁰⁾ 自經과 母子經의 穴들로 처방을 구성했는데, 이것은 舍巖이 序文(五行書)¹¹⁾에서 “自인 火에 대하여 母인 木을 補하면 心病은 저절로 나을 것이고, 腎의 水에 있어서 官인 土를 瀉하면 腎의 羌함이 回生할 것이며, 西官인 金氣를 抑制하면 肝膽은 平穩하고, 東臟인 木賊을 깨끗이 除去하면 脾胃의 壽命이 길어질 것이다. 肝은 東方에 位置하니 腎에게 生함을 받는데, 相生하는 것은 補하는 것이 좋고, 相剋하는 것은 抑制해야 하니 虛한 것은 補하고 實한 것은 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에 잘 나타나 있다.

(2) 正格의 構成

相生關係를 이용하여 ‘虛者補其母’의 方法으로 補하는 方法이 있으며, 相剋關係를 이용하여 相剋하는 것(官)을 泄하는 ‘瀉其官’의 方法으로 補하는 方法이 있다. 이 方法을 自經補瀉와 他經補瀉에 應用하면 4개의 治療穴이 도출된다. 즉 母性經에서의 母性穴과 自經에서의 母性穴을 補하고 自經의 賊邪가 되는 賊性經의 賊性穴과 自經의 賊性穴을 瀉하는 것으로 構成되어 있다¹²⁾.

(3) 勝格의 構成

相生關係를 이용하여 ‘實則瀉其子’의 方法으로 瀉하는 方法이 있으며, 相剋關係를 이용하여 相剋하는 것(讐)을 도와 주는 ‘補其讐’의 方法으로 瀉하는 方法이 있다. 이 方法을 自經補瀉와 他經補瀉에 應用하면 4개의 治療穴이 도출된다. 즉 自經의 賊邪가 되는 賊性經의 賊性穴과 自經의 賊性穴을 補하고, 子性經의 子性穴과 自經의 子性穴을 瀉하는 것으로 構成되어 있다¹²⁾.

2) 定型의 活用

(1) 定格의 活用例

① 手太陰肺經

· 燥症：燥症；太白·太淵 補, 少府·魚際 瀉

② 手陽明大腸經

· 腹痛：寒邪入腸 大腸不足；三里·曲池 補, 陽谷·陽谿 瀉

③ 足陽明胃經

· 鬱症：熱鬱消之 虛也；陽谷·解谿 補, 臨

泣·陷谷 瀉

④ 足太陰脾經

· 鬱症：濕鬱泄之 虛也；少府·大都 補, 大敦·隱白 瀉

⑤ 手少陰心經

· 天地運氣：六丙之年 漫衍之紀 歲水太過 寒氣流行心火受邪, 人病 身熱 心燥 陰厥上下 中寒 譫妄 心痛 喘嗽 自汗夜極；大敦·少衝 補, 陰谷·少海 瀉

⑥ 手太陽小腸經

· 噎膈：小腸熱 心燥；臨泣·後谿 補, 通谷·前谷 瀉

⑦ 足太陽膀胱經

· 噎膈：三陽噎 虛冷；商陽·至陰 補, 三里·委中 瀉

⑧ 足少陰腎經

· 天地運氣：六辛之年 涸流之紀 歲水不及 濕乃盛行, 人病 腫滿 身重 濡泄 足痿 清厥 腳下痛等症；經渠·中封 補, 太白·太谿 瀉

⑨ 足少陽膽經

· 腰痛：項脊如鍾 膽傷；通谷·俠谿 補, 商陽·竅陰 瀉

⑩ 足厥陰肝經

· 鬱症：木鬱達之 虛也；陰谷·曲泉 補, 經渠·中封 瀉

(2) 勝格의 活用例

① 手太陰肺經

· 痛風：白虎風 肺勝；少府·魚際 補, 陰谷·尺澤 瀉

② 手陽明大腸經

· 痛風：痛痺 寒勝；陽谷·陽谿 補, 通谷·二間 瀉

③ 足陽明胃經

· 痛風：肌痺 胃勝；臨泣·陷谷 補, 商陽·厲兌 瀉

Table 1. 定型의 活用頻度

	正格		勝格	
	使用된 篇	頻度	使用된 篇	頻度
手太陰肺經	燥症, 虛損, 泄瀉, 頭痛, 腰痛, 脇痛, 疝氣, 脚氣, 通風, 痿証, 鼻病, 血症	12	痛風	1
手陽明大腸經	腹痛, 腰痛, 疝氣, 齒痛	4	痛風	1
足陽明胃經	鬱症, 嘔吐, 虛損, 泄瀉, 腹痛, 目病	6	痛風	1
足太陰脾經	鬱症, 痢疾, 逆, 嘔吐, 嘈雜, 噎氣, 積聚, 虛損, 泄瀉, 脇痛, 痿證	11	痛風	1
手少陰心經	天地運氣, 中暑, 逆, 積聚, 虛損, 疝氣, 痿證	7		0
手太陽小腸經	噎膈, 勞極, 痛風	3		0
足太陽膀胱經	噎膈, 痛風	2		0
足少陰腎經	天地運氣, 咳嗽, 痢疾, 逆, 積聚, 虛損, 勞極, 頭痛, 腹痛, 腰痛, 疝氣, 痿證, 目痛, 目痛, 鼻痛	15		0
手厥陰心包經		0		0
手少陽三焦經		0		0
足少陽膽經	腰痛, 痛風	2	痛風	1
足厥陰肝經	鬱症, 鬱症, 痰飲, 逆, 積聚, 虛損, 泄瀉, 頭痛, 腹痛, 脇痛, 疝氣, 脚氣, 痛風, 痿證, 目病, 目病,	16	眩暈	1
合計		78		6

④ 足太陰脾經

· 痛風 : 着痺 濕勝 ; 大敦 · 隱白 補. 經渠 · 商丘 瀉

⑤ 足少陽膽經

· 痛風 : 行痺 風勝 ; 商陽 · 竅陰 補. 陽谷 · 陽輔 瀉

⑥ 足厥陰肝經

· 眩暈 : 風眩 肝實 ; 經渠 · 中封 補. 少府 · 行間 瀉

(3) 定型의 活用頻度

본 연구의 底本인 《圖解校監舍巖道人鍼法》에 기재되어 있는 條文의 수는 총 240개이고, 그중 傷寒篇에 있는 2개의 條文에는 處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총 238개의 處方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定型化된 正格의 處方은 모두 78개이고, 勝格의 處方이 6개로 총 238개의 처방 중 35.3%에 해당하는 84개의 處方만이 正格 또는 勝格의 定型 處方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64.7%의 處方은 變型의 處方이거나 經驗方인 것이다. 84개 定型 處方의 12經脈別 活用頻度와 사용된 篇名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2. 舍巖鍼法の 變型

1) 處方 構成의 原理에 따른 變型의 分類

(1) 變型 1

이런바 ‘瀉南補北說’로 잘 알려져 있는 《難經·七十五難》²⁾의 “經言, 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 然, 金木水火土, 當更相平. 東方木也, 西方金也, 木欲實, 金當平之, 火欲實, 水當平之, 土欲實, 木當平之, 金欲實, 火當平之, 水欲實, 土當平之, 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瀉南方火, 補北方水. 南方火, 火者木之子也. 北方水, 水者木之母也, 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也. 經曰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와 이에 대한 陵瘦燕의 “水는 木의 母가 되는데, 만약 水의 虛함을 補한다면 그 힘으로 火를 勝할 수 있고, 火의 勢力이 衰退하면서 木의 勢力도 역시 衰退할 것이니(母能令子虛), 이것이 곧 子를 虛하게 하는 뜻이다”라는 설명에 근거를 둔 것이다.⁷⁾ 즉 木을 瀉하고자 할 때 水를 補하면 火가 衰하고 그에 따라 金이 盛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木이 衰하게 되므로 母를 補함으로써 子를 瀉하게 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水를 補함

에 따라 일어나는 연쇄반응 중 金이 盛하게 되는 것은 ‘子能令母實’에 해당하는 현상이고, 木이 衰하게 되는 것은 ‘母能令子虛’에 해당하는 현상이 된다. 이러한 變型 1의 예를 들면, 中風篇에서 ‘口噤痰塞 如引鉅聲’을 脾虛라고 하면서 處方을 보면 經渠를 補한다고 하였다. 經渠는 金穴로서 脾土의 입장에서 보면 子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母가 虛한데 子로써 母를 實하게 만든다는 原理를 이용한 것으로 定型에서 이용하는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와는 다른 것이다.

(2) 變型 2

《難經·七十三難》²⁾의 “諸井者, 肌肉淺薄, 氣少, 不足使也, 刺之奈何? 然, 諸井者, 木也. 榮者, 火也, 火者木之子. 當刺井者, 以榮瀉之. 故經言補者不可以爲瀉, 瀉者不可以爲補, 此之謂也”, 滑壽의 “諸經之井, 在於手足指梢肌肉淺薄之處, 氣少不足使爲補瀉也. 故設當刺井者, 只瀉其榮, 以井爲木, 榮爲火, 火者木之子也. 詳越人此說, 專爲瀉井者言也. 若當補井則必補其合, 故引經言, 補者不可以爲瀉, 瀉者不可以爲補, 各有攸當也” 및 丁德用의 “諸井在手足指梢, 故言肌肉淺薄也. 井爲木, 是火之母, 榮爲火, 是木之子, 故肝木實, 瀉其榮, 肝木氣虛不足補其合, 瀉之復不能補, 故言不可以爲補也”⁸⁾에 대한 내용으로 즉 歷代 註家들이 “井穴을 瀉할 때 榮穴로써 대신 瀉하고, 井穴을 補할 때 合穴로써 대신 補한다”라고 말한 것이다⁷⁾. 여기에서 井穴을 瀉할 때 榮穴로써 대신한다는 것에는 ‘實則瀉其子’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¹³⁾, 마찬가지로 井穴을 補할 때 合穴로써 대신 補하는 것은 ‘虛則補其母’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처방에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原理가 二重으로 적용된 경우이다.

(3) 變型 3

病證의 狀態에 따라 같은 五行 屬性을 가진 五俞穴 사이에서 經脈間 穴位 移動이 나타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傷寒篇¹⁴⁾의 “九日 足少陽膽經病衰 手少陽三焦經受之”는 膽虛證이니, 膽虛證은 通谷과 俠谿를 補하고, 商陽과 竅陰을 瀉해야 하는데, 金經의 金(井)穴인 商陽을 瀉하는 대신에 水經의 金(井)穴인 至陰을 瀉한 것이 이러한 형태에 해당한다. 이것은 同一한 五輸穴의 屬性을 이용하되 經脈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이른바 ‘治療 效果의 극대화’를 꾀한 것이다^{7,8)}.

이밖에도 김⁸⁾은 舍巖鍼法の 變型으로 自經 內에서 다른 穴로 代替하거나 自經自穴을 이용하는 등의 처방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것들은 일정한 원

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를 이용한 變型 1과 중복되기도 하였으며, 각각의 病症에 따라 이루어지는 經驗方으로서 처방의 의도를 해석하기가 난해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論外로 하였다.

IV. 考 察

1. 定型과 變型의 活用頻度

《圖解校監舍巖道人鍼法》에 나와 있는 條文의 수는 총 240개이고, 그 중 傷寒篇의 2개 條文에는 處方이 없다. 따라서 238개의 處方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正格의 處方이 78개이고, 勝格이 處方이 6개로 총 84개의 處方만이 正格 또는 勝格의 定型화된 處方이다. 즉 전체 處方의 35.3%만이 定型 處方이고, 나머지는 모두 變型 處方이거나 經驗方이다. 正格 또는 勝格의 定型이 舍巖鍼法の 보편적인 治療法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 사용빈도가 238개의 條文 중 78개에 불과하며, 變型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체에 나타나는 病症이 各樣各色이므로 동일한 處方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變型보다 定型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 다시 말해서 處方을 변화시킬 필요 없이 이미 規格화된 處方만으로도 대다수의 증상들이 치료될 수 있었다면 定型에 쓰이지 않는 많은 穴들의 존재가치는 지금보다 감소하였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變型和 經驗方들이 定型보다 많은 것을 보면 精確한 處方을 구사하여 필수불가결한 穴들만을 선택함으로써 최선의 치료를 다하고자 했던 處方者의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다. 따라서 舍巖鍼法の 연구에 있어서 定型뿐만 아니라 變型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定型 處方의 構成 原理에 대한 견해

1)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와 ‘虛者瀉其官, 實者補其讐’

舍巖鍼法の 定型에 존재하는 處方 構成의 原理를 보면 먼저 《難經·六十九難》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불어, 여기에 ‘虛者瀉其官, 實者補其讐’의 원리를 결합하고 이것을 自經과

母子經 및 自經과 五行의 相剋關係에 있는 適性經에 적용함으로써 正格과 勝格으로 알려져 있는 12經脈 각각의 4개씩의 治療穴이 구성된다. 그런데, 處方된 穴들의 시술 순서를 보면 正格과 勝格 모두 他經의 穴을 먼저 시술하고 나서 自經의 穴을 시술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積聚篇에서 “心積이 있을 때에는 大敦과 少衝을 補하고 陰谷과 少海를 瀉한다”라고 했는데, 補함에 있어서 木經의 木穴인 大敦과 水經의 水穴인 陰谷을 먼저 하고 自經의 木穴인 少衝과 自經의 水穴인 少海를 나중에 하는 것이다. 八體質鍼法을 창시한 권도원은 이에 대해 소위 天符穴과 非天符穴 사이에는 신호를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식으로 그 신호 전달의 기능이 구별되어 있다는 ‘送穴과 受穴’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⁶⁾. 저자는 이에 대해 포위망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敵의 활동 범위를 점차 좁혀서 사로잡는 것으로, 즉 病의 원인을 진단한 뒤 木을 보하고 水를 瀉한다는 포위망을 설치하고 그것을 心經으로 좁혀가서 邪氣를 討伐하는 것이다. 大敦은 木經의 木穴로서 他經의 木穴에 비해 木性이 강하며, 陰谷은 水經의 水穴로서 他經의 水穴에 비해 水性이 강한 穴이므로 시술자가 의도하는 補木瀉水의 결과를 환자의 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大敦과 陰谷으로 테두리를 치고 그 포위망을 각각 少衝과 少海로 좁혀가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大敦 → 少衝, 陰谷 → 少海의 순서로 시술하도록 處方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2) 主穴과 補助穴

舍巖鍼法の 正格과 勝格은 모두 二補二瀉의 運用으로 處方이 構成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개의 主穴과 2개의 補助穴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첫째, 正格은 해당 經脈의 기능을 增強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補法이 되며, 勝格은 해당 經脈의 기능을 抑制하기 위한 것으로서 瀉法이 된다^{8,12,15)}. 그러므로 補虛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正格에서는 補하도록 되어 있는 2개의 穴이 主된 기능을 발휘하고, 實證을 瀉하기 위해 사용되는 勝格에서는 瀉하도록 되어 있는 2개의 穴이 主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主된 기능을 발휘하는 穴들이 主穴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마치 방제학에서 補劑는 補益藥이, 瀉劑는 發散藥 또는 瀉藥 등이 각각 君臣佐使 중 君藥으로 작용하도록 약물 처방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正格에서 瀉하도록 되어 있는 2개의 穴(虛

者瀉其官)과 勝格에서 補하도록 되어 있는 2개의 穴(實者補其響)은 同一한 穴이다. 그러므로 正格과 勝格은 모두 이러한 공통적인 穴 2개와 공통적이지 않고 正格이나 勝格에만 있는 2개의 穴(虛者補其母 또는 實者瀉其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同一한 穴이 서로 반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되는 正格과 勝格에 모두 쓰인다는 것은 이것이 각각 正格 또는 勝格의 處方에서 주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穴은 아니라는 점을 示唆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二補二瀉의 定型 處方에 있어서 이러한 공통형 2개는 補助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肺經의 경우 少府와 魚際의 두 穴이 正格에서는 瀉하는 穴이 되어, 勝格에서는 補하는 穴이 되어 肺正格과 肺勝格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補助의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主된 기능을 발휘하는 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셋째로 《難經·六十九難》에서는 “經言, 虛者補之, 實者瀉之, 不實不虛, 以經取之. 何謂也? 然,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當先補之, 然後瀉之. 不實不虛, 以經取之者, 是正經自病, 不中他邪也, 當自取其經, 故言以經取之.”라고 하여 五行의 相生關係를 이용한 치료법을 언급하였다^{13,16)}. 그런데, 定型의 構成 原理 중에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는 《難經·六十九難》에 直接的으로 언급되어 있는 반면, ‘虛者瀉其官’, ‘實則補其響’는 相剋關係를 이용한 치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難經·六十九難》에서 直接的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定型의 正格, 勝格에 모두 쓰이는 2개의 同一穴을 導出した 原理인 ‘虛者瀉其官’, ‘實則補其響’는 定型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難經·六十九難》과 무관한 것이므로 결국 2개의 同一穴은 定型에서 主된 역할이 아닌 補助의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難經·六十九難》에서 直接的으로 언급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에 따라 구성된 2개의 穴이 主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舍巖鍼法の 定型은 五行의 相生相剋關係를 自經과 他經에 함께 적용하여 二補二瀉의 處方을 형성하고 있고, 處方에 시술 순서의 중요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主된 기능과 補助의인 기능을 나누어 담당하는 일종의 君臣佐使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變型 處方의 構成 原理에 대한 견해

舍巖鍼法の 變型에 대하여 저자는 처방 구성의 원리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 變型 1

《難經·七十五難》의 ‘子能令母實，母能令子虛’를 응용하여 補瀉에 적용한 것으로, 즉 木을 瀉하고자 할 때 水를 補하면 火가 衰하고, 그에 따라 金이 盛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木을 瀉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母를 補함으로써 子를 瀉하게 되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火를 補하면 金이 衰하게 되고 이에 따라 木이 盛해지므로 子으로써 母를 盛하게 만드는 원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變型 1에서는 五行의 相剋關係를 이용하여 치료한다는 處方 構成의 原理가 담겨 있다. 또한 몇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료효과를 유발하도록 구성되었으므로, 虛하거나 實한 臟腑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자 하는 處方者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

2) 變型 2

《難經·七十三難》을 바탕으로 하여 肌肉이 淺薄하고 氣가 적은 井穴에 직접 補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井穴을 瀉할 때 榮穴으로써 대신 瀉하고, 井穴을 補할 때 合穴으로써 대신 補’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井穴을 瀉할 때 榮穴으로써 대신하는 것에는 ‘實則瀉其子’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¹³⁾, 마찬가지로 井穴을 補할 때 合穴으로써 대신하는 것에는 ‘虛則補其母’의 원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처방에 ‘虛者補其母，實者瀉其子’의 原理가 두 번 중복 적용된 高度의 複合處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黃帝內經·靈樞·熱病篇》에서 “氣滿胸中，喘息，取足太陰大指之端，去爪甲如薤葉”，“喉痺舌卷，口中乾，煩心，心痛，臂內廉痛，不可及頭，取手小指次指爪甲下，去端如韭葉”이라고 말하는 등 《黃帝內經》에서도 井穴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후대에도 應急 狀況이 발생했을 경우에 十井穴에 刺鍼하거나 三稜鍼으로 瀉血하는 것처럼 이러한 變型 處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며¹³⁾, 舍巖道人の 處方 중에서도 井穴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단계 處方의 하나로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3) 變型 3

金經의 金(井)穴인 商陽을 瀉하는 대신에 水經의

金(井)穴인 至陰을 瀉하는 것과 같이 同一한 五行의 屬性을 이용하되 여기에 經脈의 特性을 반영함으로써 經脈間 穴位의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病證에 따라 더욱 적절한 處方을 구사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金의 性質을 가진 穴을 瀉하는데 商陽을 대신하여 至陰을 瀉하는 것은 寒性을 가진 經脈에서 金穴을 瀉함으로써 金氣를 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金氣가 過度함으로써 水氣(寒氣)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함께 제거하고자 하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인체에서 金生水가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定型과 變型의 活用

1) 定型의 活用

일반적으로 正氣가 虛할 때에는 正格을, 邪氣가 實할 때에는 勝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8,12,15)} 것과 같이 正格과 勝格이 사용된 위의 예를 보면 正格은 해당 經脈이 虛하여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사용되고, 勝格은 해당 經脈이 實證의 상태에 있을 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正格은 虛證일 때 補虛의 목적으로, 勝格은 實證일 때 瀉實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定型 處方의 原理가 제시된 《難經·六十九難》이 五行의 相生關係에 따른 조절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病의 진행 과정이 相生으로 轉變되는 경우에 定型의 處方을 活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變型의 活用

(1) 變型 1

變型 1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難經·七十五難》에 대해 凌¹³⁾은 五行의 ‘相剋關係’를 이용하여 病을 調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고, 김⁸⁾은 李東垣의 注解를 토대로 하여 病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機轉을 이용하여 病을 치료할 것인지를 말하는 治療的인 측면이 함께 제시된 것이라는 소위 ‘瀉南補北의 메커니즘’을 말하였다. 또한 이 등¹⁵⁾은 《難經正義》를 바탕으로 病의 轉變 過程과 治療 機轉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하였고, 또한 이에 대해 實한 臟器를 중심으로 하여¹⁶⁾ 疾病이 五行關係로 발생되는데, 邪氣가 母

로, 또는 所不勝하는 臟器로 전이되는 病理構造式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實證으로서 五行의 相剋關係로 轉變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變型 2

變型 2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難經·七十三難》은 井穴의 사용을 榮穴이나 合穴로 대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井穴은 肌肉이 淺薄하여 鍼感이 銳敏하므로 救急處置穴로서 起死回生の 작용이 있고 諸病의 始初에 쓰이는 穴이다¹⁷⁾. 따라서 銳敏한 鍼感이 적당하지 않은 虛弱한 者, 체질적으로 銳敏한 者, 老人이나 小兒, 孕婦와 같이 날카로운 자극이 해로울 수 있는 者 등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定型에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原理가 한 번 더 응용된 複合 處方이므로 定型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病情이 더욱 복잡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變型에 의하면 五行 중에서 水 또는 火에 해당하는 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것을 寒格이나 熱格의 嚆矢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⁸⁾ 寒熱의 不均衡이 주요 病因으로 작용하는 경우 또한 적응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變型 3

이것은 定型의 處方에서 經脈間에 穴位가 바뀌는 것이므로 각 經脈이 가지는 五行(木火土金水) 및 六經(三陰三陽)의 特性을 考慮하여 보다 病證에 적합한 處方을 구사하고자 의도할 때 이와 같은 變型을 活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論

이상과 같이 舍巖鍼法의 定型과 變型 處方을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舍巖鍼法에서 定型은 35.3%에 불과하며, 變型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變型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舍巖鍼法의 定型은 《難經·六十九難》을 기본 原理로 하여 構成되었으며, 五行의 相生相剋關係를 自經과 他經에 함께 적용함으로써 二補二瀉의 處方을 형성하고 있고, 그 處方에는 시술

순서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3. 舍巖鍼法의 定型에는 正格과 勝格에 각각 主穴과 補助穴이 있으며, 이로써 主된 기능과 補助的인 기능을 나누어 담당하는 일종의 君臣佐使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4. 舍巖鍼法의 變型을 構成 原理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 《難經·七十五難》의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를 이용한 것(變型 1), 둘째, 《難經·七十三難》에 따라 井穴을 榮穴이나 合穴로 대신한 것(變型 2), 셋째, 病證에 따라 같은 五俞穴 사이에서 經脈間에 穴位를 바꾼 것(變型 3)이 있다.
5. 定型을 活用함에 있어서 正格은 經脈의 기능이 虛할 때 補하기 위해, 勝格은 實할 때 瀉하기 위해 사용하며, 病이 相生으로 轉變되는 경우에 活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6. 變型을 活用함에 있어서 變型 1은 實證으로서 五行의 相剋關係로 轉變되는 경우에, 變型 2는 銳敏한 鍼感이 적당하지 않거나 病情이 더욱 복잡한 경우 및 寒熱의 不均衡이 주요 病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變型 3은 각 經脈이 가지는 五行의 特性 및 三陰三陽의 特性을 考慮하여 보다 적합한 處方을 구사하고자 할 때 活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參考文獻

1. 裴秉哲.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 成輔社. 1978 : 205-23, 283-91.
2. 滑壽. 難經本義. 台北 : 集文書局. 1971 : 151-9.
3. 高武. 鍼灸取英. 서울 : 醫聖堂. 1969 : 153-8.
4. 秦越人 編, 張世賢 註. 校正圖註八十一難經 卷三. 北京 : 鴻寶齋書局. 年代未詳 : 6-11.
5. 金達鎬. 舍巖鍼法의 著作時期 및 形成背景에 關한 研究. 東義大學校 韓醫學碩士學位論文. 1993 : 69.
6. 김민수, 이인선. 舍巖鍼法과 八體質鍼法 處方의 組成 原理에 대한 比較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7 ; 24(6) : 171-85.
7. 金達鎬, 金重漢. 舍巖鍼法의 變型에 關한 研究. 한국한의학회연구논문집. 1996 ; 2(1) : 337-80.
8. 金達鎬. 圖解校監舍巖道人鍼法. 釜山 : 小康出

版社. 2005 : 4-17.

9. 金達鎬. 校監舍巖道人鍼法. 釜山 : 小康出版社. 1998 : 31-140.
10. 이정태, 임윤경. 中風에 대한 舍巖鍼法の 運用에 關한 文獻 연구 - 《舍巖鍼灸正傳》과 《東醫寶鑑》 및 《鍼灸大成》과의 比較연구 - 대한침구학회지. 2006 ; 23(5) : 111-25.
11. 舍巖道人 著, 杏坡居士 譯註. 舍巖道人鍼灸要訣. 서울 : 杏林出版社. 1975 : 2.
12. 정인기, 강성길, 김창환. 五輸穴을 利用한 鍼法の 比較 考察. 大韓鍼灸學會誌. 2001 ; 18(2) : 186-99.
13. 凌耀星. 難經校注(影印本). 서울 : 一中社. 1992 : 126.
14. 舍巖道人 著. 李泰浩 譯註. 舍巖道人鍼灸要訣. 서울 : 杏林出版社. 1975 : 30-4.
15. 이종무, 조명래, 채우석. 難經 75難을 利用한 五行鍼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1 ; 18(2) : 123-35.
16. 박은주, 조명래. 五行鍼法の 運用에 對한 《難經》 <六十九難>과 <七十五難>의 比較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2001 ; 18(6) : 250-63.
17.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 集文堂. 1993 : 186.